



양봉업의 경영경제상

봉군관리의 이모저모

필자 윤은영

어느 업종이던 간에 건전한 기반 위에 자리를 잡고 매번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곧 고도 기술의 활용 내지는 각자 두뇌의 발전여야와 쓰임새가 일의 성패의 조점이라 할 것이다.

본래 실천단계에 있어 세기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묘기, 적정정보의 쟁취도 불가결하지만 경영주마다 자신의 입지에 맞추어 값싸고 간편하게 소화하여 대응 할 수 있는 아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고금을 통틀어 인간사회의 공통 철칙인 재화의 취택열과 더불어 동질(同質) 봉업인간의 사고력 암시야도 넓어져 하는 일마다 편리를 취택하는 안일주의 심리를 유발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케 하는 선각자의 모호적 창의역량도 고도화하여 신규상품이 쏟아져 나와 봉업인의 이목을 끌어 설치하게끔 유혹을 하니 필자의 심사 역시 찬반이 엇갈리기도 한다. 이제 근대 양봉인으로서 단열구설을 권고하는 바이오나 고사 중에 "진구식이면 진개화요 진개화면 진구식이다"란 말이 있어 안정한 고정양봉 경영에서 유광적 전사양봉으로 급변하는 터 기왕에 쓰이던 기구가 사장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향이 표출하는 징조이므로 여기에 호응할 대안도 서서히 풀어 나올 것으로 믿는다. 인위적 밀원 조성상 적격재를 소개하는 동시에 갖가지 병충방제용 식물상약제의 조제격식을 소개하여 동질 봉업인에게 권장하여 실리에 접취 하시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본론

1. 필자가 생각하는 건전한 봉장 설치

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것만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은 전무할 것이므로 비록 남의 지상권자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어디이던 간에 꿀벌 백통 정도는 가져다 놓으기를 수 있다. 그만한 대가라 함은 비단 백통 봉군의 존치면적 뿐만 아니라 백군의 벌 무리가 활동하는 범주내의 밀원주에게 심방사례는 못할망정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리동장 또는 연로자와 유지를 심방 극소 하나나 생산한 봉밀을 약간이나마 선사했을 때 지방인의 호의가 두터워져 영속적 주객의 의가 이어져 타 봉업인이 다시 그 지역에 침입하지 못하게 도와줄 수 있다.

봉군의 배치장소야 지형형편에 의거하여 산 구령 쪽 남향 또는 동남향 경사진 중턱일 것이기는 하나 밀원수의 종류별 수량이 반경 2km 지점내에 7-10년생 이까시나무 매 군당 30본정도가 있어야 하며 그에 앞서 개화하는 신나무, 산벗나무, 왕버들 등도 있으면 춘절기 절량해소 내지 화분원 수집에 충분하고 이까시꽃이 종료시 의례히 도봉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최종채밀기에는 소량의 저밀소비를 남기는 동시에 야외밀원으로 쪽제비씨리(일본말로 '니세이까시'-종자 파종시 100% 발아하는 습생 식물임)나무가 매 군당 30수 이상 확보가 된 경우에 화분화밀 공수할 수 있다.

쪽제비씨리꽃이 진 후 밤꽃 개화가 시작되어 유밀일수가 약 20일간을 메꿀 밀원수로는 쥐똥나무, 노린재나무, 직입복분자 등이 있다.

금년에 밤꽃 개화가 예년보다 1주간 빨리 6월 중순에 일주일 간 개화하였다. 밤꽃이 종료한 지 12일이 지나 요즘 수유나무의 조생종의 꽃망울이 흰빛으로 변하여 꿀벌무리가 방화를 시작하였다.(조중 만생종 개화기간이 25-30일간임). 열매, 열매껍질, 나뭇잎과 줄기, 나무가지 껍질, 뿌리의 껍질이 다 살균 살충제로 사람과 가축에 쓰이며 약의 성과에 관해서는 차후에 언급하겠

다. 옛날에 대가문 앞 또는 공청의 정원에 의례 한 그루씩 심어 가꾼 일이 보편화했다. 그 까닭은 잡기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고대 한자옥편 강회자전 초부 팔획 유자가 그 증명증거입니다. 이 앞서 밤꽃이 지고 수유나무꽃이 피기 전 20여일간 무화기를 보완할 밀원 화분수로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최적수인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무궁화는 개화기간은 100일 간이며 개화시작은 삼강절에서 소급 100일전에 7월 상



중순부터 꽃이 필니다. 무궁화의 종류가 다양하여 화변이 크고 작은 것은 빛깔이 백색대형, 백색소형 담홍색 대형, 소형 진홍색 소 대형 담황색 소 대형 백홍색 팔중화변 등이 있으며 팔중화변(겹꽃잎)에는 꿀벌이 방화하지 않는 것 같고 꽃 중에 밀선은 여러개입니다. 화분색은 백색이고 화밀의 용도는 고급 차로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희귀품인데 우리 나라 사람만은 이것이 고급차의 재료인줄 모르고 있다.

특히 분비밀선이 꽃 속에만 있는 식물이 아니고 생장점 내지 옆병의 중추경에서도 화밀이 분비하기 때문에 진딧물이 많이 피는 것이 병폐인데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했을 때 화중밀선에서 화밀이 넘쳐흘러 꽃잎 세포 내에 양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고급 차로 이용한다.

물론 꽃의 밀선(5개)에서 화밀이 넘쳐흐를 때 꿀벌 무리가 방화 시 10매수가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오니 수입수종인 주립나무의 자황색 꽃 한송이에서 한 마리 벌이 배를 가득 채운다하여 그 꽃잎을 차 재료로 취집 한다는 말은 아직 발표가 없는 듯 싶은데 농업과학기술연구원 산하 잠사곤충연구소에 재직중인 마영일 박사가 태국 시찰소감 발표문 중에 그 나라의 재배밀원 용안육의 개화기간은 1개월간이며 5일당 1회 꿀로 채밀하여 전 기간 6-7회 채밀한다고 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봉업인마다 국화원 무궁화를 봉장 주변 또는 마을 주변과 도로변에 1ha 이상 심고 진딧물을 철저히 구제했을 때 5일 간격으로 채밀하면 19회의 채밀이 가능하다. 또한 마지막 1회 정도는 월동양식용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막대한 이익이 눈앞에 있음은 잘 모르는 것 같다.

필자가 제 자랑에 도취하는 듯 하나 1970년대 초반 연기군청 자문위원시절 환경정화운동의 일환으로 무궁화 꽃동산 만들기를 주창한 바 있어 만장일치로 채택 가결되었다. 이에 3년 연속 식재한 결과 연기군 관내에서는 밭길 닿는 곳마다 무궁화꽃이 만발하였다. 애초에 시발할 무렵 삼수구득 문제 논란에 대하여 촌가에 산재한 것을 조사 발굴한 것으로 필자가 호언장담하고 대신 조건을 붙여 임업용 비료 10포를 원예조합소유의 소형 트랙에 싣고 수원외의 서울대 유달영 교수가 경영하는 무궁화 전문 농장에 도착하였다.

관리인에게 설명하고 수목용 비료 10포의 중량 250kg의 반량에 해당하는 삼목용 삼수재를 구하여고 일부터 왔다고 전하고 유 교수님과는 수일전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은 바 있다고 전하였다. 그 때 당시 유 교수님은 외국에 나가기 전에 부인에게 당부하고 프랑스로 떠난 후였다. 여하튼 트럭운전 기사와 산림조합 직원 1인 그리고 필자가 종별을 가리지 않고 4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다. 10kg 씩 묶은 다발이 11동치이고 품종별로 10줄기씩 묶

은 것이 16품종을 묶은 것까지 합하여 12속을 실어와 장전리에 3속을, 전동에 1속을 나머지 8속을 연기군청 후원에 하차하여 매복한 후 같은 해 4월 2일 군내 각 면 산업 및 총무계 3인, 연기군내 각 기관장, 유지 등이 합석하여 삼수 절단 처리하여 매 호당 10수씩 식재토록 하였다.

당년에 난 가지를 10cm 길이로 절단하여 100개씩 묶어 발근 촉진제(지베레린 1200배액 또는 루톤 180배액)에 10분간 침적 후 삼식 하였다. 진딧물약으로는 무취성인 피리로 1000배액이 최적입니다.

수유나무의 개화 중기에 피는 다른 수종으로는 봉(봉)나무, 산초나무꽃이 8월 초 중순에 피어 꿀벌무리가 엉겨 채밀이 된다. 특히 산초나무의 종류는 다양하다. 초피나무, 개조치나무 등은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구제용 효과를 나타낸다.)

양봉장 주변에 다량 식재하여 채밀 경수업, 수실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재래종 꿀벌은 프로폴리스를 수집 저장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지만 비교적 건실한 생애를 유지하는 원인인 즉 아산에서 잘 성장하는 조피나무를 선호 취택하는 경향이 있어 평탄지 보다 오지로 도망을 가는 것으로 추리한다.

이상 열거한 밀원수종이 골고루 폭넓게 갖추어 졌다면 고달픈 전사양봉이 아닌 배속 편한 고정양봉을 한가지 밀원 즉 한 때만 누리며 야근성장하는 단일 편파양봉이 아니라 다각적 안정봉업을 영속할 수 있다. 이는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를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500군 상당의(단상 90군, 계상 160군) 생물을 싣고 4도 6전 끝에 9천만원의 경비를 뿌려 가며 무정봉밀 100드럼돌파 운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봉군당 2말 정도 생산한 꿀로 썩 많은 편이 아닌 듯 싶은 것은 고인 고용호 웅이 대구에서 출발하여 논산을 경유하고 평북 묘향산 기슭까지 왕복하며 군당 8되씩 채밀실적을 올린 바 있고, 봉과 윤신영씨는 재독시절 한국식 계량으로 환산하여 군당 12되를 평균 생산하였다. 이회에 충북 농과대학장을 역임 한 대 농학교수였던 조현항 웅의 양봉실력은 연평균 5두, 필자의 경력으로는 전일 36군 한도 괴산소수 아가시꽃 체전군 백군면 화당리 오배가지주 꽃(7일간), 정선군 남지면 대량산 싸리꽃, 괴산군 화양동 싸리꽃 등에서 총 군당 5말을 채밀한 바 있으며 1958년에는 매 군당(계상군) 9말가량을 채밀 한 바 있다. 현재의 실적은 단상 8군, 3계상 8군(단상은 5일간격으로 2회 채밀) 5승약, 3계상 봉군 평균치 2두 4승약(상잔하 4지폭 봉개저밀 소비매구(2회 채밀 30매씩)

실물전본을 증명하니 기회 있으면 질적인 우열을 식별하시길 바랍니다. 